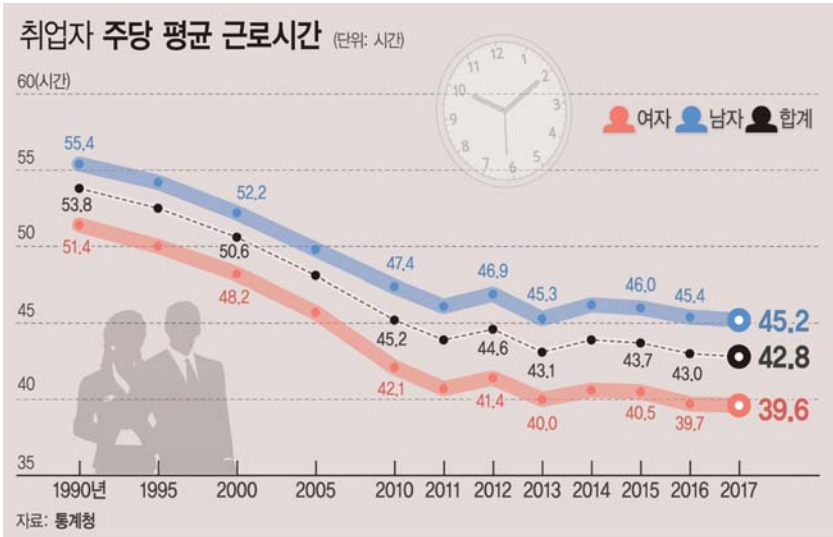


취업자 주당 평균 42.8시간 일해...OECD 국가 중 최고

통계청, 일·가정 양립 지표 발표...맞벌이부부 함께 살면 근로시간 ↑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月평균 173.3시간 근무...10.1시간 초과



지난해 취업자들은 주당 평균 42.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일하는 시간이 길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8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률은 남성이 71.2%로 여성

(50.8%)보다 20.4%포인트 높았다. 남녀 간 고용률 차이는 좁혀지는 추세다. 2014년 22.0%포인트였던 격차가 2015년 21.3%포인트, 2016년 20.9%포인트에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좁혀졌다.

배우자 있는 남녀의 고용률 격차는 28.5%포인트(남성 81.9%·여성 53.4%)로 미혼 남녀(1.6%포인트)보

다 월등히 높다. 평균 근로 시간은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42.8시간으로 1년 전(43시간)보다 12분 감소했다. 남성이 45.2시간, 여성이 39.6시간으로 각각 12분, 6분 줄었다.

근로시간 별로는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41만3000명으로 1년 전(448만7000명)보다 7만4000명(1.6%) 줄었다. 남성이 4만6000명(2.6%), 여성이 2만8000명(1.0%) 각각 감소했다.

반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93만명으로 1년 전(2150만9000명)보다 42만1000명(2.0%) 늘었다. 남성이 19만2000명(1.4%), 여성이 22만9000명(2.8%) 각각 증가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 남성은 일주일에 평균 46.3시간, 여성은 40.3시간 일했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남편의 근로 시간은 46.6시간으로 따로 사는 경우(44.2시간)보다 길었



다. 아내도 부부가 함께 살 때의 근로 시간은 40.3시간으로 별거하는 경우(40.2시간)보다 길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3.3시간으로 1년 전의 177.1시간보다 3.8시간 감소했다.

월평균 근로시간 중 초과근무는 10.1시간이었다. 이 역시 1년 전보다 0.6시간 줄었다.

하지만 300인 미만의 사업체 규모에서는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초과 근로시간이 증가해 '100~299인' 사업체가 17.8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12.3시간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감소 추세지만 OECD 회원국과 견주면 긴 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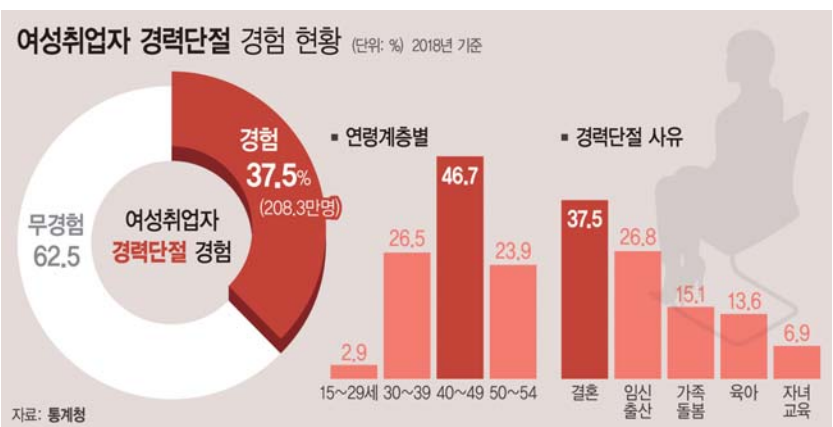
2016년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

시간은 2052시간으로 2015년(2071시간)보다 19시간 줄었다.

그러나 독일(1298시간), 네덜란드(1359시간), 프랑스(1423시간), 영국(1660시간), 일본(1724시간), 미국(1787시간) 등에 비해서는 장시간 일하고 있었다.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근로 시간이 길다.

뉴스

“가사 분담” 외치지만...공평히 나누는 남편 20% 불과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과 대조적으로 실제 가사를 공평하게 나누는 가구는 많지 않았다. 맞벌이 가구에서 남편과 부인의 주당 근로시간 차이는 약 6시간이었지만 여전히 70%가 넘는 가구에서 부인이 가사를 주도하고 있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8 일·가정 양립 지표'를 보면 올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59.1%로 1년 전(53.5%)에 비해 늘었다. 2008년 32.4%

에 그쳤던 이 비율은 2012년 45.3%, 2016년 53.5%를 거쳐 60%에 다다랐다.

이와 함께 가사를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줄었다. 가사 분담과 관련해 '부인 주도'라 답한 비율은 올해 38.4%로 1년 전(43.8%)보다 감소했다. 이 비율은 2008년엔 66.5%에 달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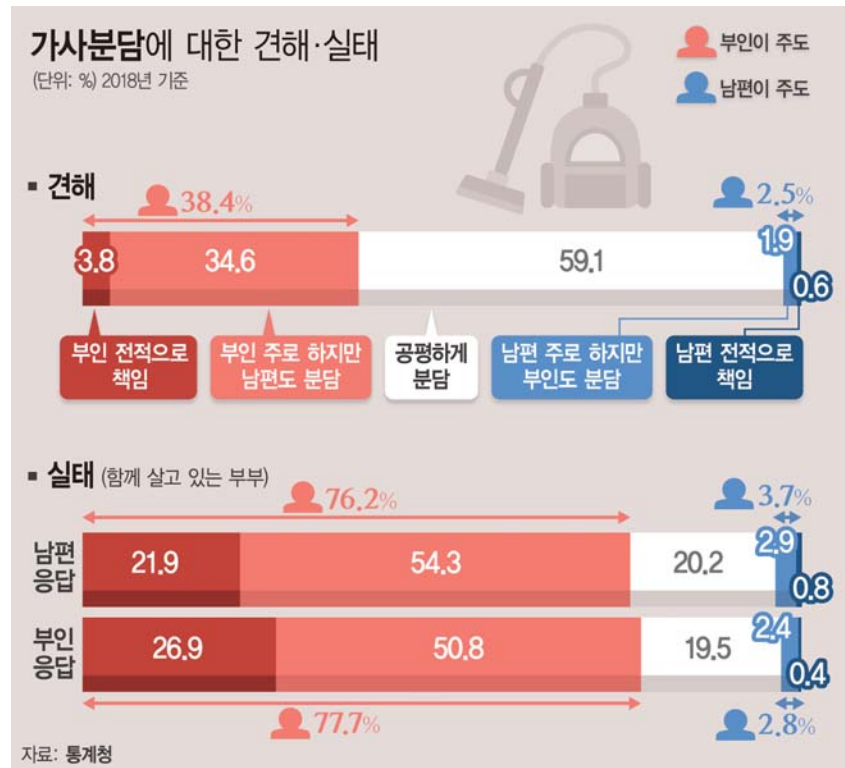
다만 가사 분담 실태를 보면 여전히 부인이 주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의 76.2%, 부인의 77.7%가 가사를 부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남편(21.9%)보다 부인(26.9%)이 많았지만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남편(54.3%)이 부인(50.8%)보다 많았다.

실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남편이 20.2%, 부인이 19.5%에 불과했다. '남편이 주도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남편이 3.7%, 부인이 2.8%에 그쳤다.

이재원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인식은 늘고 있지만 실제 분담 비율은 여전히 낮다"며 "남편과 부인 간 인식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의 100%에 가까운 부인들이 ▲식사 및 요리 준비(99.7%) ▲설거지(99.7%) ▲세탁(99.5%) ▲시장 보기 및 쇼핑(99.3%) ▲집 안 청소(99.5%) 등 모든 가사 노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남편은 각각에 대해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2.7% ▲60.9% ▲49.1% ▲69.5% ▲69.8%였다. 동시에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47.3%



▲39.0% ▲51.0% ▲30.4% ▲30.1% (45.5%)보다는 0.9%p 감소했다. 맞벌이 가구 비율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년 전보다 줄었다.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1년 전보다 줄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1222만4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45만6000가구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다. 전년

를 차지했다. 1년 전(48.4%)보다는 0.2%p 증가했다. 맞벌이 가구 비율은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둔 경우 41.6%로 가장 낮았다. 자녀가 초·중학생 연령이면 비율은 더 늘어났다. 자녀의 나이가 7~12세일 경우엔 51.3%, 13~17세일 경우엔 58.1%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다만 자녀 수가 많을수록 맞벌이 비율은 낮아졌다.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43.3%, 2명일 때 48.8%, 1명일 때 49.4%로 각각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시간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자가 46.3시간, 여자가 40.3시간으로 6시간 차이가 났다.

한편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여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직장 내 보육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1253개소 중 1086개소(86.7%)가 해당 의무를 이행했다. 보육 시설 설치 의무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여된다.

보육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통계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